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

(2면에서 계속)

당과 사회주의체제의 품속에서 집단주의와 인간애를 품어주어 호환하며 배양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는것은 흔히 보게 되는 미담이지만 이번 방역전에 능동한 감동들은 사연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가슴뜨거운 미담들과 곁길한 인간애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수 없는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것만 말하더라도 약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철야전투를 벌인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초가 필요한 세대, 곤란한 이웃들에게 사십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지원자들은 증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또 그속에서는 존경하는 전성로병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나이 어린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곤란한 형편에서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더우기 자기는 배를 곯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써는 진가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목과 인간적유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당중앙과 뜻과 정을 같이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힘을 얻었으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도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었습니다.

은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어있는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이고 위력이며 바로 이로 하여 이번과 같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거둬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엄청난 보건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방역장벽을 지켜 수고를 많이 한 모든 인민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방역사업을 몰심장면으로 성원한 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번에 비상방역전선에서뿐 아니라 경제전선과 국가사업전반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몇해째 지속된 방역상황에 대처한 약성전염병사태는 국가사회생활과 경제건설에 막대한 장애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재난으로 되었지만 이 모든것을 완강히 극복하고 정상사업을 유지하면서 예견했던 탈선속도를 드림없이 보장한것 자체가 바로 커다란 승리로 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때 대하여 선포하면서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믿고 비상방역전과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과업을 철저히 관철되었습니다.

올해 경제사업의 급선무로 내세운 농업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들이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은 한해 농사에서 관건으로 되는 봄철에 시작된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장애로 되었으며 제일 바쁜 모내기철에 국가적인 로력지원도 예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올해에 거어 자기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열의로 충만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열병도 이겨내고 방대한 모내기과제도 순수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어려운 방역전투를 벌리고있는 인민들에게 희소식으로 되었습니다.

수도의 대규모살림집건설과 련포은실농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펼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방역학적요구가 더 엄격해지고 수송과 자재보장이 순탄치 않은 조건에서도 계획된 공사일정을 줄기차게 추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부문에서도 로력보장, 자재보장이 어느때보다 골절로 곤란하였지만 일별, 순별, 월별 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

제전반의 정체를 막고 올해 목표달성으로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것이 또한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당, 행정, 경제기관들, 사법검찰부문과 안전, 보위, 국방부문들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는데 맞게 비상시사업체제를 신속히 수립하고 허접과 공간, 편향을 찾아 대책하면서 자기 사업을 신속성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과 단위 일군들이 당과 정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계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행동으로 체득하게 된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업에서는 결합과 교훈도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직면할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에 원만히 대처하는데서 소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찾은 교훈은 두가지로 함축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건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견지하여온 방역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이번 방역위기의 시발점으로 된 금강군 전연지대에서의 유원자발생도 그 지역내에서 얼마든지 차폐되고 억제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명으로 시작된 약성전염병이 방역부문에 내재된 방심과 해이의 공간을 타고 수도 권에까지 침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천수만의 인력을 투하하여 전연과 국경, 해안에 치밀한 봉쇄망을 펴고 전인민적인 방역형체를 조성하였는데 설마 약성비루스가 들어올 틈이 있거나 하였는가고 자만방심, 자책위안하면서 사태를 풀어놓고있는 그 자체가 이번과 같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만도취, 안일해이, 설마병이 전염병의 초기류입 상태를 판단할수 없게 눈을 흐려놓은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제에 서서 사소한 이상징후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시켜 고찰하면서 순발적인 대응력을 발휘하고 불의의 사태앞에서 침착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자신감있게 전개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전국으로의 전염병확산을 피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이번 방역전쟁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떠나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사업태도와 일본세에 계속 매달린다면 앞으로 도래할수 있는 보건위기에앞에 언제든지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초기에 누구나 느낀것이지만 약성비루스의 검사와 진단, 과학적인 치료기술을 제때에 정확히 확립실행하지 못함으로써 하여 능히 막을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내고 내부에서의 전염병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미신적인 망설임까지 아울러 방역과 치료사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역의 모든 고려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근원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 예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리적봉쇄이론에만 매달려 기계적으로 사업하다보니 인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사업의 부진을 가중시키고 앞질러가며 할수 있는 일도 뒤따라가면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보건, 방역의 실태, 깊이 말하면 우리의 보건, 방역하부구조와 기술력, 물질적준비상태가 전진국에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보건, 방역정책에 상응하게 발전하지도 못하였고 불의의 사면앞에 민활하게 대응할수 있게 준비되었는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다 체험했듯이 일단 유원자가 도처에서 발생할 때 방역부문, 보건부문의 필수대응능력이 얼마나 긴요하고 절실한가를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결국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항상 중시하고 예측해야 할 객관적인 위기는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쟁위기, 전염병위기, 자연재해, 이것이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오래전부터 강력히 선차적임을 넣고있으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원력, 잠재력도 각성있게 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능력건설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는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우리앞에 나서는 조미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한 주요정책과업들이 이미 다 책정되고 시달되었으므로 큰선에서만 몇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하여 전염병전과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비상방역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중보도수단을 통하여 매일 소개되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과 우리 나라 주변의 전염병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에는 너무도 때가 이릅니다.

우리 경내에 들어왔던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10여종의 아형들이 세계각지에 번이 출현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판국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높은 원숭이천연두비루스가 수십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중증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전염병발생가능성도 인류를 불안케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자만하거나 해이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이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성과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데 웅망한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방역전의 주인이 광범한 대중이고 방역전의 승패도 사람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이미 확립되어있는 전사적인 방역건설기가 절대로 약화되거나 저조해지지 않게 방역선전과 교양을 각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불피고 해이와 방심, 무경각이 살아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행정경제부문, 법기관들은 전부 각성하여 대중적인 방역의식과 위기의식을 견지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도높은 방역선전과 해설사업도 판에 박은 소리를 반복하면 오히려 권태감과 만성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자료들과 우리 방역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실질 대중속에 방역의식을 공고히 하고 방역준수기풍을 심화시킬수 있는 선전전, 사상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지침과 규률을 여기는 현상과의 조직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우리의 방역투쟁이 대중의 자각성에 강력한 법적담보가 안받침된 확실하고 믿음성있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장벽을 유지공고화하는데 계속 주력하여 그 어떤 약성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대무행병의 변동특성에 따라 보장할것은 보장하고 새로 차단할것은 차단하면서 봉쇄의 완벽성을 기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여기에서도 봉쇄차단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 고무격려와 함께 근무조건 및 생활보장에 주의를 힘을 넣어 우리의 방역전선에서 사상정신적으로나 작전기술적으로, 방역학적으로 완벽할뿐 아니라 책임성과 경각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의 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제적우례를 지어내는 공중보건비상사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도전적인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건악몽이 재현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며 안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방역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 방역능력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늦추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정치리념인 인민대중계일주의의 요구로 보아도 그렇고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제도의 본성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이번 보건위기가 새겨준 뼈저린 교훈을 놓고보아도 방역능력건설을 강행 추진하여 반드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실시한 방역정책과 지침들,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체계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방역을 보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완벽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오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와 방역체계의 질서를 보다 완비하며 방역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있게, 현실성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힘을 넣어야 할 과제는 전문방역일군들을 양성하고 수준을 높여주는 사업, 과학적인 검사측정설비들을 개발장비하는 사업, 전문경력치료시설들을 나라의 곳곳에 꾸리는 사업을 늦추지 말고 계획성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이미 제시한대로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을, 의리기공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의약품소모공장, 방역의약품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전국의 병원들을 현대화하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로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방역체제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건강장수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방역부문, 보건부문앞에 나선 중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인민들은 최대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목격하면서 의료일군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이 믿음, 이 평가를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제일 소중한 재부로 간직해야 하며 이에 계속 보답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이 준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에게 대한 지극한 정성을 체질화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에 심신을 강리터 바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시련속에서 또 한번 강해졌으며 이제 더 많은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과감히 이겨내고 더더욱 강해질것입니다.

바로 석달전 우리 경내에 약성비루스가 류입전과 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 오늘날같은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거여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뿔쳐일어난 고마운 인민과 그 인민의 일심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보건위기도 절망과 좌절의 고비가 아니라 발전도약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승리를 내다보며 전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인민의 믿음과 고무격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뚜렷이 과시된 우리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비상방역전선에서만이 아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상희와의 위기를 과감히 이겨낸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하고 승화시킨다면 올해 우리가 내세운 투쟁목표는 물론이고 당 제8차대회가 밝힌 5개년계획의 목표도 성공적으로 점령될것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